

## 三唐詩人の 詩에 나타난 世界 認識 研究

— ‘길’에서의 시적 자아의 움직임을 中心으로 —

김 금 숙\*

<目 次>

I. 서 론	V. 시적 자아의 움직임을 통해 본
II. 崔慶昌 - 떠남[移動]과 길 잃음[迷路]	三唐詩人の 세계 인식
III. 白光勳 - 머무름[淹留]과 두려움	VI. 결 론
IV. 李達 - 떠돌[流浪]과 삶에 대한 自足感	

<국문 초록>

본고의 연구 목적은 시 속에 반영된 삼당시인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에 나타난 ‘길’에서의 시적 자아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최경창의 시에서 시적 자아의 움직임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떠남[移動]’과 정치 현실에서의 좌절인 ‘길 잃음[迷路]’으로 나타난다. 현실 세계에서 인정받고 더 높은 관직에 오르기를 바라는 시적 자아가 현실적인 지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겪기도 하는 것이다. 백광훈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 ‘머무름[淹留]’과 두려움, 겁냄, 부끄러움 등이 나타난다. 시적 자아의 현실 속에서는 벼슬을 해야 하는 현실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이달의 경우 시적 자아의 움직임은 定處가 없는 ‘떠돌[流浪]’과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족감으로 나타난다. 시에서 자주 보이는 ‘집 없음[無家]’

\* 강원대학교 강사 / [goldmine@kangwon.ac.kr](mailto:goldmine@kangwon.ac.kr)

은 자신만의 공간인 집에 대한 추구로 이어진다. 시적 자아는 현실 공간에 대해 거리감을 드러내지만 시인으로서의 방랑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시적 자아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세 시인의 현실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최경창의 시에서는 시적 자아의 현실과 현실 세계가 일치한다. 그 속에서 시적 자아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현실 세계로 향하고 있다. 백광훈의 시에서는 시적 자아의 현실이 정치 현실과 고향으로 분열되어 있다. 또 시적 자아의 지향점이 향하는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 이달의 시에서 시적 자아는 현실 세계에 대해 거리를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시적 자아의 지향은 현실이 아니라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를 향하고 있다. 세 시인의 세계 인식을 비교해 보면 현실에 대한 인식도,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도, 추구의 방향도 다를 수 있다.

【주제어】 삼당시인, 세계 인식, 길, 迷路, 淹留, 流浪

## I. 서론

孤竹 崔慶昌(1539~1583), 玉峯 白光勳(1537~1582), 蓀谷 李達(1539~1612)은 朝鮮 中宗과 宣祖 대에 걸쳐 활동했던 시인들이다. 이 셋은 唐詩風의 시로써 주목을 받으며 후대의 평자들에 의해 三唐派, 혹은 三唐詩人으로 명칭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시인을 함께 연구함에 있어 그들의 공통분모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시에 나타난 당시풍의 양상이나 미의식을 살피고, 당풍 형성의 배경을 밝히는 데 관심을 집중해 온 것이다. 교유 관계나 湖南詩壇)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세 시인을 아을

- 
- 1) 호남시단은 조선시대 이후 전라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시인들의 활동 무대를 일컫는 말이다.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p.541. 특히 16세기 호남시의 새로운 경향은 당시풍의 습득과 미적 성취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중서, 「16세기 湖南詩 미의식-意境의 아름다움」, 『동방한문학』 제50집, 2012, p.171.

러서 지칭하게 된 공통적인 특질이자, 16세기 시풍 변화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들은 그들에 대한 연구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된 상황이다.<sup>2)</sup>

그런데 비슷한 시풍의 시 속에 반영된 삼당시인 각자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그 동안 이러한 차이에 주목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시에 나타난 풍격이나 미의식의 차이에 대해서 밝힌 논문들은 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시가 지니는 공통적인 특질인 당시풍을 깊이 있게 살피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차이점을 본격적으로 밝힌 논의는 아니다. 본고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실에 대한 결핍이나 고독, 충족되지 않은 욕망 등은 시인이 시를 쓰는 가장 큰 내적 동기이다.<sup>3)</sup> 시를 쓰는 행위는 시인의 욕망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시 속에는 시인이 바라는 것들이 반영되게 마련이다. 삼당시인은 시 이외의 다른 글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sup>4)</sup> 문학을 생활의 일부로 여길 만큼 글쓰

2) 다음은 삼당시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다. 안병학,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1988; 이종목, 『漢詩 作法의 言語學的 接近 試論-三唐詩人 漢詩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1권, 국문학회, 1997; 김정인, 『三唐詩小考』, 『동양고전연구』10집, 동양고전학회 1998; 안병학, 『朝鮮 中期 唐詩風과 詩論의 展開 樣相』, 『한국문학연구』창간호, 고려대 한국문학연구소, 2000; 이택동, 『韓國漢詩의 分析의 研究-三唐詩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2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김종서, 『16세기 湖南詩壇과 三唐詩人』, 『한국한시연구』11집, 한국한시학회, 2003; 조영임, 『三唐詩에 나타난 "비에의 정조"에 대하여』, 『인문학지』27권, 충북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3; 『三唐詩에 보이는 繪畫性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20집, 개신어문학회, 2003; 『三唐詩人の '仙界憧憬'에 대한 小考』, 『한국한시연구』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三唐詩人の 詩世界 연구』, 충북대 박사논문, 2004; 김종서, 『16세기 湖南詩壇과 唐風』,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4; 박병익, 『16세기 三唐詩人の 唐詩風 연구』, 목포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종서, 『詩話에 나타난 三唐詩人에 대한 批評樣相』, 『한문학보』17권, 우리한문학회, 2007; 윤재환, 『『三唐集』을 통해 본 조선 중기 문인들의 이별 그리고 그리움의 변주-삼당 사이의 교유시를 중심으로』, 『고전과해석』7집,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09; 張景昆, 『朝鮮王朝"三唐"詩人の宗唐詩風與元明詩學』, 『열상고전연구』제46집, 열상고전연구회, 2015.

3) 이승훈, 『현대시작법』, 복인, 2011, p.27.

기가 삶과 밀접했던 시대에 시만을 썼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충족되지 않은 현실, 즉 시인이 꿈꾸는 세계가 시라는 형식 속에 집중적으로 형상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이라는 사회 속에서 한시를 썼던 삼당시인이 꿈꾸는 세계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 세계는 현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분제 사회에서 시는 대체로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다. 특히 조선 사회에서 사대부들에 의해 쓰여진 漢詩는 ‘道를 구현하는 그릇[載道之器]’이자 정치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삼당시인들은 당시풍의 시 속에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정감, 즉 사람다움을 담아내면서 한시를 조금은 쉽고 대중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기운의 중심에는 시 속에 반영된 그들의 ‘길 위의 삶’에 대한 절절한 述懷가 있다.

삼당시인의 시 속에는 道, 途, 路, 驛, 馬 등의 시어를 바탕으로 한 ‘길 위의’ 공간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이동성을 내포하는 行, 流, 遊, 留, 客, 旅 등의 시어로써 ‘길’이라는 공간을 함의하고 있는 시들도 다수이다.<sup>5)</sup> 길은 물질적 장소와 정신적인 공간을 포함한 여러 갈래의 의미들을 지시하고 형성하는 공간이다. 길은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거리와 목적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내면적이고 성숙한 비가시적인 진리의 목표로 승화되기도 한다.<sup>6)</sup> 시적 공간

4) 유현숙은 삼당시인들이 시 창작을 그 자체로서 인정한 이른바 전문 시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유현숙, 「손곡 이달의 시 연구」, 동국대 박사 논문, 1987, p.120.

5) 최경창의 『孤竹集』에 실려 있는 245수의 시 중에는 路(37회), 客(33회), 行(32회), 遊(29회), 馬(27회), 流(23회), 道(14회), 旅(13회) 驛(12회), 途(8회), 留(7회) 등이 있다. 백광훈의 『玉峯集』에 실려 있는 147수의 시 중에는 路(99회), 行(65회), 客(65회), 流(64회), 遊(49회), 道(34회), 留(27회), 馬(26회), 驛(6회), 旅(5회), 途(3회) 등이 있다. 이달의 『蓀谷集』에 실려 있는 368수의 시 중에 行(93회), 客(83회), 路(60회), 道(51회), 馬(50회), 流(39회), 遊(36회), 旅(27회), 留(18회), 驛(15회), 途(6회) 등이 있다. 漢詩에서 나그네로서의 이동에 대한 표현이 어느 정도 관습적인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상당히 큰 비중이다.

6) 이문열·권영민·이남호 엮음,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p.150.

인 길에는 떠남과 돌아옴, 출발과 도착이라는 동적 계기를 바탕으로 한 시적 자아의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다.

시 속에서 구축되는 공간은 이미지로 형성된 의식 속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sup>7)</sup> 이러한 의식 공간은 시인이 처한 현실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때 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한시에서 표현되는 공간들은 현대시에 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에 가깝다. 그 속에는 시인들의 현실적인 경험과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시인의 의식 세계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삼당 시인의 시 속에 등장하는 ‘길’은 그들의 현실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이미지화 된 의식 속 공간이면서 동시에 실제 공간인 ‘길’ 속에는 시인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 곧 시인의 세계에 대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에 본고는 세 시인의 시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 공간인 ‘길’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세계 인식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에 반영된 그들의 세계 인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崔慶昌 - 떠남[移動]과 길 잃음[迷路]

길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다. 땅 위에 자리한 공간적 線形인 것이다. 길은 어디에서도 끝나지 않고, 모든 곳으로 통하며, 단절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로 이어준다. 또 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 전개되는 과정이라는 비유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최경창의 시 중에는 ‘길 위’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 시들이 많다.<sup>8)</sup> 「連山道

7) 김선학, 『비평 정신과 삶의 인식』, 문학세계사, 1987, p.124.

8) 최경창의 시에 나타난 ‘길 위의 삶’과 이로 인한 ‘피로감’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中」, 「三河途中」, 「馬上口占」 등과 같이 길 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제목의 시들과 「驛」, 「館」, 등으로 길 위의 여정을 암시하는 시들<sup>9)</sup> 이외에도 「行」, 「過」, 「發」, 「還」, 「向」 등의 방향성으로 길이라는 공간을 내포하는 시들이 다수 있다.

이 시들에서 길 위의 시적 자아는 대부분 출발하고, 돌아오고, 지나가고, 향하는 등 어디론가 떠나고 있다. 의식 공간으로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는 끊임없는 이동이라고 하는 불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길 위에서의 이별을 그린 시들을 더하면 불안정성은 배가된다.

그러나 그의 시에 나타나는 떠남은 대부분 목적지를 향한 이동이다. 「長峽」, 「三河」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지명이 아니더라도 변방으로, 중국으로, 서울로 혹은 서쪽으로, 동쪽으로의 이동은 막연한 떠돌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의 시에 있어 「길」은 구체적인 장소를 향해 가는 과정이며, 이는 「길」이 의식 공간 보다는 실제적인 공간으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馬上時將換	말 위에서 계절은 바뀌려 하는데
西歸道路賒	서쪽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하다.
人烟隔河少	강 건너편에 인가는 드물고
風雪近關多	눈보라는 관문에 가까워지니 거세지네.
故國書難達	고향의 소식은 전해 듣기 어렵고
他鄉鬢易華	타향에서 머리만 쉽게 희어지는데.
天涯意寥落	변방 하늘가에서 마음만 쓸쓸해지고
獨立數栖鴉	홀로 서서 제집 찾는 까마귀만 헤어보네. <sup>10)</sup>

이 시는 명나라 사신의 수행원으로 중국에 갔을 때 閩陽驛을 지나면서 지은 것으로, 길 위에 있는 시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이다. 계절이

논문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김금숙, 「최경창 시의 이미지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2000, pp.88-93.

9) 「閩陽驛」, 「剡水驛次華使韻」, 「龍川館」, 「旅館秋思」, 「通州館望朝陽門」, 「發京城宿高峯館次壁上韻」, 「次景濂堂韻 景濂堂是金溝客館」.

10) 崔慶昌, 『孤竹遺稿』, 「閩陽驛」.

바뀔 정도로 오랫동안 이동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아득하다[道路賒]’. 여기에 ‘말 타기’는 이동으로 인한 피로감을 극대화시킨다. 말 타기는 현대인들에게는 전신 체력 단련을 위한 스포츠로 여겨질 정도로 온 몸을 긴장시키는 일인 것이다. 尾聯에서 시인은 ‘집 찾는 까마귀[數栖鴉]와 자신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쓸쓸함과 더불어 고독감을 표출한다. 사실 이 여정은 사절과 수행원을 포함하여 수 백 명의 인원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sup>11)</sup> 이런 정감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좁은 말 등에 의지해 흔들리면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하는 시적 자아의 모습이고 보면 ‘홀로 서 있는[獨立]’ 듯한 쓸쓸함을 느끼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 설정은 “말 한 마리 타고 오늘 아침 서울을 떠나, 서쪽으로 가노라니 비바람 앞길에 가득하다.[一騎今朝發上都, 西歸風雨滿前途.]”<sup>12)</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젊은 시절 楊應鼎의 문하에서 수학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그리고 관직에 나아가게 되면서부터 함경도, 중국, 영광, 평양 등 벼슬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생활이 이어졌다.<sup>13)</sup> 관직 생활을 했던 15년 중 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外職으로 돌았기 때문이다. 그의 시 속에 나타나는 길은 바로 이런 이동을 보여주는 생생한 삶의 공간인 것이다.

그는 떠남이나 이별에 대해 습관적으로 슬픔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떠남과 이별은 인간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절에 계신 스님이 웃으며 역 남쪽 길을 가리키며, 오가는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네.[居僧笑指驛南路, 人去人來長不休.]”<sup>14)</sup>에서와 같이 스님의 미소를 빌려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인 역시 ‘가고 오는 것[人去人來]’이 인간 삶의 기본적인 모습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

11) 김태준,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pp.11-13.

12) 崔慶昌, 『孤竹遺稿』, 「發京城宿高峯館次壁上韻」.

13) 朴世采, 『孤竹遺稿』, 「孤竹詩集後序」.

14) 崔慶昌, 『孤竹遺稿』, 「德津堂」.

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있어 떠남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또 떠남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서글플 것도 없다. 끊임없는 이동성을 내포한 존재가 인간이라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별 역시 필연적인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길 잃음[迷路]’이다. 그의 시에서 길은 때때로 이동이 불가능한 길, 迷路가 되기도 한다. 미로는 길을 잃어버려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모른다는 실질적인 의미 이외에 ‘정확한 방향(목표)을 잃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다’,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등과 같은 비유적 의미로도 읽을 수 있는 시어이다. 길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모든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의 시에서는 “시를 안고 비파를 연주해도 돌아갈 길 아득하고[愁抱琵琶歸路迷]<sup>15)</sup>, “문 나서니 돌아갈 길 아득해라.[出門歸路迷]<sup>16)</sup>, “쌓이는 빗줄기에 나그네 길 끊어지고[積雨斷行旅]<sup>17)</sup>, “길 잃어도 어디에 물어야 할지를 모르겠구나.[不知何處問途迷]<sup>18)</sup>, “시든 풀 누런 모랫벌에 길을 잃고 헤매네.[白草黃沙迷絕域]<sup>19)</sup> 등과 같이 실질적,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길 잃음’이 자주 보인다. 이는 목표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난관에 맞닥뜨린 시적 자아의 좌절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로는 그의 현실적인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길을 잃은 듯한 답답함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은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을 뜻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길로 막힘없이 나아가고 싶은 욕심과 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걸출한 문사들을 배출한 명문 사대부 가문에서 태어나 詩文으로 당대에 이름을

15) 崔慶昌, 『孤竹遺稿』, 「次淸江有思」.

16) 崔慶昌, 『孤竹遺稿』, 「重別愼評事」.

17) 崔慶昌, 『孤竹遺稿』, 「龍川館」.

18) 崔慶昌, 『孤竹遺稿』, 「連山道中」.

19) 崔慶昌, 『孤竹遺稿』, 「鏡城題詠送李善吉還朝」.

떨쳤던<sup>20)</sup> 그였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치적 역정은 순탄치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힘없이 나아간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며, 이는 곧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로서의 정치적 삶은 그에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데 그의 당대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 사림의 신진세력과 구세력간의 대결과 반목, 동서 분당의 권력다툼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였다. 그는 시문을 짓는 능력에 비해 낮은 관직을 옮겨 다녔고,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파직을 당하기도 했다.<sup>21)</sup> 능력이나 時運 이외에도 길을 막는 요소가 다분했던 이러한 상황은 시 속에서도 드러난다.

五馬西歸遠	태수가 해서로 멀리 가니
千門北望深	서울에서 보는 북쪽은 아득히 멀고
今朝寄君淚	이 아침 그대에게 눈물을 보내니
不獨別離心	단지 이별의 슬픔만은 아니라네. <sup>22)</sup>

1581년 윤현이 안악 군수로 부임할 때 쓴 시이다. 이 시에는 “자승의 이름은 현으로 이때 이조좌랑으로 있었다. 세상의 미움을 받아 안악 군수로 좌천되었다.[名現時以吏郎, 忤於世出守安岳郡.]”라는 原主가 달려 있다.<sup>23)</sup> 뇌물을 받

20) 朴世采, 『孤竹遺稿』, 「孤竹詩集後序」.

21) 실록에는 사헌부가 그와 北方의 官妓 洪娘과의 염문을 문체 삼아 파직을 요청하는 글이 있다. 『(국역)조선왕조실록』, 21집 338면. 朴世采는 이를 당시 대시간이었던 李山海, 동인의 당수이며 요직에 있던 許篈 등의 잘못된 점을 용납하지 않았던 그의 강직한 성품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최경창은 뚜렷한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던 인물은 아니다. 다만 정철, 박순, 이이 등 서인들과의 친분으로 인해 동인보다는 서인에 가까운 정도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미묘한 상황에서는 분당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도 한 것이다.

22) 崔慶昌, 『孤竹遺稿』, 「送尹子昇之郡海西」.

23) 尹晔(1536-1597) 1567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인물이다. 당시 서인의 거두인 작은 아버지 尹斗壽, 尹根壽가 모두 요직에 있어 함께 三尹으로 일컬어졌다. 그는 1578년에 동인 金誠一과 함께 銓郎이 되었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진도군수 李銖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성일에게 논핵을 받은 적이 있으나, 오히려

은 혐의로 좌천되는 것이었는데, 그 내막에는 동인과 서인의 다툼이 관계되어 있었다. 그래서 시인은 단지 이별의 슬픔만이 아닌 다른 안타까움을 시 속에 담고 있다. 4구의 ‘不獨’은 3구의 ‘눈물’이 이별 자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별시 속에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을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무릇 만물은 평정을 얻지 못하면 운다. ... 사람의 말도 또한 그러하다. 부득이한 일이 있을 뒤에야 말을 하게 된다. 그 노래하는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 그 우는 것은 품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무릇 입에서 나와 소리가 되는 것이 모두 불평함이 있기 때문인가?<sup>24)</sup>

『古文眞寶』에 실려 있는 韓愈의 글이다. 대개 사물이 우는 것은 무언가 불평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잃은 상태, 달리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sup>25)</sup> 즉 소리가 없는 것을 울게 만드는 불평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위의 시에서 시인이 흘리는 눈물 역시 그러한 불평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서 분당의 정치적 상황을 동쪽과 서쪽으로 나뉜 물에 비유하여 읊고 있는 「分水嶺」 같은 시에서도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대한 시인의 ‘시름[愁]’이 드러난다.

이러한 정치 현실 속에서 관직 생활을 담아낸 시들을 통해 그의 현실적인 지향을 엿볼 수 있다.

幕下無多事      막중에 많은 일이 없어서  
鄉園許暫歸      고향에 잠깐 다녀오란 허락을 받았지요.

김성일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일부의 의론이 있었다.

24) 韓愈, 「送孟東野序」(『古文眞寶』後集), “大凡物不得其平則鳴。... 人之於言也亦然, 有不得已者而後言。其訶也有思, 其哭也有懷。凡出乎口而爲聲者, 其皆有弗平者乎?”

25) 정민, 『한시미학산책』, 솔출판사, 1996, p.214.

指麾勞遠出	지휘관이 힘써 멀리까지 나와서
飲餞惜餘暉	송별연을 베풀어주시니 더욱 아쉽구려.
臨別重携手	떠나려 할 때 거듭 손을 잡아끄니
懷恩欲濕衣	고마움에 눈물이 옷깃을 적시려 합니다.
微誠期少報	미약한 정성이나마 조금 보답하려
不敢臥柴扉	감히 사립문 닫고 눕지도 못합니다. <sup>26)</sup>

북평사 시절 휴가를 얻어 서울로 올라오면서 지은 시이다.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나름 시인의 관직에 대한 소회를 엿볼 수 있다. 조선 사회에서 관직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에 편입되는 방법이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원이 조직에 상황을 보고하는 듯한 형식을 띠고 있다. 조직 속에서는 개인보다 조직의 사정이 우선시 된다. 首聯에서 시인이 휴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직에 속한 개인으로서의 시적 자아에게는 지휘관이 베풀어주는 송별연이 눈물 나도록 고마운 것이다. 특히 尾聯은 조직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희생, 조직을 향한 충성심 등을 극진하게 보여준다.

과직과 복직의 우여곡절을 거치다 1582년에 선조의 특명으로 종성부사로 부임하면서<sup>27)</sup> 쓴 시에서는 “오롯한 신하에게 한 자루의 검이 있으니, 죽는 날까지 조금이라도 보답하리라.[孤臣一劍在, 未死報涓埃]<sup>28)</sup>”라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에게 관직, 더 높은 관직이란 바로 이런 의미이다. 시 속에서 현실적인 욕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는 자신이 밭 딛고 서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꿈꾼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6) 崔慶昌, 『孤竹遺稿』, 「受由上京」.

27)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중앙관직에서 영광군수로黜補된 데 불복하여 군수직을 사임하였다가 이듬해에 다시大同察訪으로 복직이 되었다. 그리고 1582년(壬午春)에 선조의 특명으로 종성부사가 되었다. 이는 종6품에서 3단계를 뛰어 넘은 이례적인 인사였다.

28) 崔慶昌, 『孤竹遺稿』, 「將赴鍾山贈鄭坡州 崑壽」.

### Ⅲ. 白光勳 - 머무름[淹留]과 두려움

백광훈의 시에서 ‘길[路, 道]’은 ‘달[月]’과 ‘봄[春]’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쓰인 시어이다.<sup>29)</sup>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길’이라는 공간에서 시적 자아의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南紀梅初發	남쪽 지방에 매화가 막 필 무렵
山川驛路邊	산천역 길가라오.
遙知縣齋夜	멀리서도 알겠구나, 고을 관사의 밤을
獨聽雨聲眠	홀로 빗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겠지. <sup>30)</sup>

삼당시인과 깊은 교유 관계를 맺었던 楊士彦의 아우 楊士奇(1531~1586)에게 부치는 시이다. 시적 자아가 놓여 있는 곳은 남쪽 지방의 어느 ‘길 가[路邊]’이다. 그런데 시적 자아가 어디를 가는 길인지, 떠나는 길인지, 지나가는 길인지 아니면 돌아오는 길인지, 그 방향성을 짐작하기 어렵다. ‘길 가’는 ‘길’과는 또 다른 함의를 품고 있다. 풍경을 거느리며 흐르는 길의 여유를 느끼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쉬는 동안 벗의 거처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路邊이다. 즉 이 시에서 ‘길’은 방향성을 내포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그러한 이를 떠올릴 수 있게 해 주는 매개 공간으로 표현된 것이다.

서울 가는 길에 고향에 있는 딸아이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길 위에서 단오를 맞으니, 시절의 풍물은 다른 지방도 같구나. 아득히 그리운 작은 딸애는 중일토록 뒷동산에서 놀겠지.[路上逢重五, 殊方節物同. 遙憐小兒女, 竟日後園中.]<sup>31)</sup>와 같은 시에서도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는, 매개 공간으로 표현된 ‘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시에서 길은 머물러 있는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29) 月(153회, 明月 포함), 春(139회, 三月 등 포함).

30) 白光勳, 『玉峯集』 上卷, 「寄楊應遇」.

31) 白光勳, 『玉峯集』 上卷, 「長城道中」.

樹竹藏村塢	대와 나무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
溪山是客遊	계산(溪山)에서 나그네 되어 노니네.
春風吹綠酒	봄바람이 좋은 술 위로 불어오니
落日重淹留	지는 해에 다시금 머무르네. <sup>32)</sup>

이 시는 上舍 徐益(1542~1587)의 별장에 써 준 것이다. 萬竹이라는 호에 걸맞게 서익의 별장은 대나무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해 있다. 시적 자이는 나그네가 되어 그곳에 다니러 간(客遊) 상황이다. 그런데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술을 마시며 시적 자이는 하루 더 머무르기로 한다. 4구는 “석양이 겹겹이 쌓여 오래 머무르네.”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머무르는 석양을 바라보며 술을 마시고 있는 시적 자이의 모습에서 ‘가야 한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짐짓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이는 시상 전개 속에서 주목해야 할 시어는 바로 ‘淹留’이다. 이는 ‘重’과 함께 쓰여 시적 자이의 머무름이 비교적 오래 이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무언가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은유적인 내포도 ‘淹留’라는 시어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sup>33)</sup>

‘淹留’은 “구월 구일이 되니 근심스러운 생각으로, 나그네로 머물며 또 세시(歲時)를 맞네.[九日仍愁思, 淹留足歲時.]”<sup>34)</sup>에서도 유사한 내포적 의미를 보여준다. 명절이 되어도 근심스러운 마음뿐인 나그네의 삶이지만 시 속에는 떠남이나 돌아옴 같은 방향성을 내포한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는다. “해 지자 특별한 구경에 그저 오래 머무른다.[異賞盡日聊淹留]”<sup>35)</sup>에서도 시적 자이는 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오래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32) 白光勳, 『玉峯集』 上卷, 「題徐上舍別業」.

33) 淹留는 ‘오랫동안 머무른다’ 혹은 ‘막히어 나아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34) 白光勳, 『玉峯集』 中卷, 「重陽日」.

35) 白光勳, 『玉峯集』 下卷, 「重新鳳棲樓」.

昨日東樓飲	어제 동루(東樓)에서 그대와 술을 마시고
不知君去時	그대가 가는 걸 보지 못하였는데
起看留旒扇	일어나서 보니 그대의 깃대 장식 부채가 남아 있어
聊寄曉窓思	이 새벽에 그대 생각을 그저 부쳐 보내네. <sup>36)</sup>

벗과 술자리를 갖은 후에 쓴 시이다. 함께 술을 마시던 벗은 어느 새 가고 없다. 그러나 시인은 그 자리에 남아 있다. 벗이 술자리에 떨어뜨리고 간 ‘깃대 장식의 부채[旒扇]’는 ‘머물러 있는[留]’ 시인 자신이기도 하다. 그렇게 홀로 남아서 떠난 이를 그리워하며 시를 쓰고 있는 시적 자아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취해[醉]’ 있다. 한시에 나타나는 ‘醉’은 단순히 술을 마시며 흥취에 젖는다거나 술에 취한다는 의미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sup>37)</sup> 그것은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면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태, 즉 현실 세계에서 의식 세계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적 자아의 ‘머무름[留]’은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별시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이별시 중에는 자신이 떠나거나 함께 떠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인 자신은 머물러 있는 상황이 더 자주 보인다.<sup>38)</sup>

이렇게 시적 자아를 남아서 머무르게 하는 動因은 무엇일까? 그 하나를 ‘怯’에서 찾을 수 있다. ‘멀리 바라보니 개인 경치가 좋는데, 높은 곳에 오르니 병으로 약해진 몸이 겁나네.[眺望宜晴景, 登臨怯病羸]’<sup>39)</sup>에서 시인은 높은 곳에 올라 좋은 경치를 보고 싶긴 하지만 두렵고 겁이 난다. ‘병들고 약해진[病

36) 白光勳, 『玉峯集』 上卷, 「醉後」.

37) ‘취(醉)’자는 술병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象形) 문자인 ‘酉’가 뜻을 나타내는 부분, ‘끝낸다’ 혹은 ‘한계에 도달한다’는 뜻을 가진 ‘卒’가 음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된 글자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취(醉)’라는 글자는 “예의를 범함이 없이 그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다.[卒其度量 不至於亂也].”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劉若愚, 이장우 역, 『중국시학』, 범학도서, 1979, p.87.

38) 75편의 이별시 중 지인을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쓴 시가 30수에 이른다.

39) 白光勳, 『玉峯集』 中卷, 「重陽日」.

羸]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꽃나무는 꽃 마음에 겁을 먹은 듯.[芳樹怯花心]<sup>40)</sup>에서처럼 봄이 되어 꽃을 피우려 하는 꽃나무에게서도 이러한 두려움과 머뭇거림을 읽는다. 이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치고 현실과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데 대한 시적 자아의 두려움과 머뭇거림을 읽어낼 수 있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부끄러움[愧]’으로 이어진다.

湖西路盡湖南路	호서 길이 끝나고 호남 길인데
千里山河一病身	천 리 산하에서 병든 이 한 몸.
古店無燈風雨夜	옛 가게에 등불 없고 비바람 치는 밤에
半生形影愧前人	반생의 이내 모습 앞사람에게 부끄럽네. <sup>41)</sup>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룻밤 묵으면서 쓴 이 시에서는 병든 스스로에 대해 겁과 두려움을 넘어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다. 4구의 ‘形影’은 형체와 그림자 또는 사람의 몸이라는 뜻이다. 몹시 외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자기의 몸과 그림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形影相用]’는 成語와도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앞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시적 화자의 내면에 그러한 시적 자아를 가엽게 여기는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은 “몸과 그림자 서로 가여워한다.[形影自相憐]<sup>42)</sup>는 盛唐 詩人 張九齡의 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구령의 시에 보이는 ‘젊은 시절의 꿈[靑雲志]’, 즉 명예나 벼슬 같은 높은 理想은 백광훈의 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40) 白光勳, 『玉峯集』 中卷, 「漫興」.

41) 白光勳, 『玉峯集』 上卷, 「還鄉路中」.

42) 張九齡, 「照鏡見白髮」, “멀지 않은 지난날 품었던 청운의 꿈, 미끄러져 넘어지니 백발노인이 되었네. 누가 알까, 밝은 거울 속에서 이 몸과 그림자 서로 가여워하는 것을.[宿昔靑雲志, 蹉跎白髮年. 誰知明鏡裏, 形影自相憐].”

一溪松櫟間朱藤	시내의 소나무 사이에 붉은 등나무 얽히고
雨暗秋山半壁燈	가을 산에 자욱한 비 내리는데 벽 한쪽에 등이 있네.
書劍無成成底用	서검을 이루지 못했으나 이론들 어디에 쓰라
十年來往愧居僧	십년을 오가며 스님에게 부끄럽네. <sup>43)</sup>

지금은 大興寺로 불리는 頭輪寺에서 시축에 쓴 시이다. 소나무들 사이에 등나무가 얽혀 있는 山寺 밖의 풍광은 다양한 群像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을 산에는 비가 내리고 날도 어두워진 상황이다. 등불 아래 앉은 시인은 스님에게 부끄러운 자신의 속내를 내비친다. 부끄러운 이유는 십년이 지나도록 ‘書劍, 즉 ‘학문과 무예’를 이루지 못했[書劍無成]’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학문과 무예를 익힌다고 해도 쓸 데가 없다는 말이다. 현실 정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음을 예들려 표현한 것이다. 이는 “멀리까지 공명을 떨치려던 젊은 날 꿈이 어긋남[萬里功名違壯志]”<sup>44)</sup>을 아쉬워하는 최경창의 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백광훈은 시 속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표현한다.<sup>45)</sup> 이는 어린 아들이 낯을 가리며 어색해 할 정도로 오랜 세월을 객지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sup>46)</sup>에서 당연하고도 절실한 마음이다. 그래서 “나그네는 고향 생각에, 빈 집에 앉아 이경이 됐네. ... 고향 출신 스님과 서로 만나서, 말은 없어도 절로 마음을 안다네.[客有故園思, 空堂坐二更. ... 相逢越鄉釋, 不語自知情.]”<sup>47)</sup> 같

43) 白光勳, 『玉峯集』 上卷, 「頭輪寺 題信堅軸」.

44) 崔慶昌, 『孤竹遺稿』, 「發京城宿高峯館次壁上韻」.

45) 백광훈 시에 나타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다룬 바 있다. 김금숙, 「白光勳 漢詩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 분석」, 『語文論集』 제38집, 중앙어문학회, 2008, pp.181-184 참조.

46) 白光勳, 『玉峯集』 上卷, 「回鄉」, “강 바다 아득하니 길은 몇 천리인고, 돌아오니 이웃 마을 옛날 그대로인데. 어린 아들은 내 얼굴이 바뀌었다고 이상해 하니, 객지 살이 세월이 날로 나이만 들게 했네.[江海茫茫路幾千, 歸來隣曲故依然. 兒童怪我容顏改, 異地光陰日抵年.]”

47) 白光勳, 『玉峯集』 中卷, 「奉恩寺贈南僧性衍」.

은 표현은 막연하거나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다. 또 고향과 비슷한 풍광을 보면 자연스레 “우리 집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만, 어느 날이 돌아갈 때인가[吾家亦有此, 何日是歸時.]<sup>48)</sup>하며 돌아갈 날을 꿈아보게 되는 것이다.

安得相隨到茅屋    어찌하면 그대 따라 초가집에 가서  
竹陰晴日岸綸巾    대나무 그늘 맑은 날에 두건을 벗어 볼까.<sup>49)</sup>

고향 스님에게 준 이 시에는 그의 현실적 갈등을 잘 드러나 있다. 시인은 고향 스님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두건을 벗고 머리를 드러낸[岸綸巾]’ 채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나 ‘어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安得]’에 대한 답을 찾지는 못한 듯하다. 벼슬을 해야만 하는 현실과 고향으로 돌아가 벼슬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봄이 되면 꼭 (관직을) 버리고 돌아가 선산 옆에 초가를 짓고 남은 생을 마치고 싶었다. ... 그런데 때마침 흥년이 들어 굶주리는 집에 입을 하나 늘릴 수가 없기에 참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 해 가을에 봐서 수확이 괜찮으면 마땅히 결행하리라.<sup>50)</sup>

관직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떠도는 삶을 살던 그는 늦은 나이에 가족들을 거두기 위해 참봉 등의 微官末職을 전전하며 서울에 머물렀다. 그는 현실, 특히 정치 현실 속에서도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였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었지만 위에 쓴 것처럼 그것 역시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늘 고향에 돌아가서 살기를 원했으나, 그 희망을 이루지 못하고 46세의 나이로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다.

48) 白光勳, 『玉峯集』 上卷, 「題尹希宏精舍」.

49) 白光勳, 『玉峯集』 上卷, 「贈鄉僧水澄」.

50) 白光勳, 『玉峯別集』, 「興(缺)書」, "春來決欲棄歸, 構巢於先壟之側, 以終餘生. ... 而適以年饑, 添口於餓餒之家不可, 故忍以坐此. 將觀來歲之秋稍稔, 則當決之也."

## IV. 李達 - 떠돌[流浪]과 삶에 대한 自足感

일생을 나그네로, 食客으로, 詩客으로 살았던 李達에게 길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공간이다. 이달은 양반과 官妓 사이에서 태어난 孽子이다. 庶孽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당대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일찍부터 관직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그는 나라 안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지었다. 이러한 그의 삶의 모습은 시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그의 시에는 최경창의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道中’이나 ‘驛’과 같이 길 위에서의 슬회를 읊은 시들이 많다. 길 위의 시적 자아 역시 대부분 어디론가 가고 있다.

匹馬梁山路	필마로 양산 길을 가니
孤城郡邑開	외로운 성 고을 읍이 열려 있네.
行人盡南路	나그네로 남도 길 끝까지 오니
何處是東萊	동래(東萊)는 바로 어디쯤인가?
滿市蒼煙起	저자에는 가득히 푸른 내 일고
乘潮白鳥來	조수 타고 흰 새는 날아오네.
悠悠作羈旅	나그네로 떠돈 아득한 세월
無事鬢毛摧	일 없이 귀밑머리만 꺾이었구나. <sup>51)</sup>

남쪽 끝에 위치한 경남 양산으로 가는 도중에 지은 시이다. 함련의 ‘남쪽 길 끝盡南路’은 그의 이동 반경이 끝에서 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쉽게 끝나지 않는, 길고도 먼 여정으로서의 길을 의미한다. 시인의 行路가 오랜 세월 이어지고 있음은 ‘悠悠’로써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의 ‘無事鬢毛摧’는 세월에 대한 무상함과 더불어 나그네로서의 삶에 대한 피로감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다.

51) 李達, 『蓀谷詩集』 권3, 「梁山道中」.

西陽下溪橋	서녘 해 냇가 다리로 지고
落葉滿秋逕	낙엽은 가을 오솔길에 가득하다.
蕭蕭客行孤	쓸쓸한 나그네 길 외로운데
馬渡寒溪影	말 타고 건너니 찬 개울에 그림자 지네. <sup>52)</sup>

강원도 평창에 있는 芳林驛을 지나면서 쓴 시이다. 이 시에서 시인이 있는 곳은 驛이다. 역은 열린 공간이며 출발의 공간인 만큼 安處와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이 시에 등장하는 시어들은 ‘西陽’, ‘落葉’, ‘蕭蕭’, ‘寒溪’ 등 대부분 하강의 이미지를 띄고 있다. 특히 ‘서쪽으로 지는 해[西陽]’는 술어 ‘下’와 결합하여 더 강한 하강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쌀쌀하고 고즈넉한 가을 풍경 속을 홀로 걷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하다. 3구에서 시인은 짐짓 쓸쓸하고 외롭다는 심정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나 곧 4구의 ‘影’을 통해 직접적인 감정을 절제하면서 다른 차원의 시적 경지를 보여준다. 찬 개울 속에 비친 그림자는 시인의 또 다른 자아이며, 주관적인 감정이 억제되고 객관화된 대상이다. 이를 통해 시인은 시적 긴장을 잘 살리고 있다.

이달의 시에서 길 위의 자아의 움직임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떠남[移動]’이 아니라 定處가 없는 ‘떠돌[流浪]’이라는 점에서 최경창과 구별된다. 그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오래 머물면 늘 돌아갈 일을 계획한다.[久滯常歸計]”<sup>53)</sup>. 목적지가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어디로든 떠나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활이다 보니 길을 떠날 때에도 그는 “몸에 딸린 불필요한 물건 없는[隨身無長物]”<sup>54)</sup>, 그야말로 떠도는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준다. “서풍 불어오니 잎새마다 마른 소리, 먼 길은 아득하여 말안장도 싫증나네.[西風吹葉葉聲乾, 長路悠悠厭馬鞍].”<sup>55)</sup>와 같이 이러한 삶에 대한 厭症이 표현되기도 한다. 말안장이 싫증난다는 것은 떠도는 삶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52) 李達, 『蓀谷詩集』 권5, 「芳林驛」.

53) 李達, 『蓀谷詩集』 권3, 「渡溟江題裁松亭」.

54) 위의 시.

55) 李達, 『蓀谷詩集』 권4, 「善山道中」.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시에서는 ‘집 없음[無家]’이라는 표현이 종종 보인다.

關外久流落	관외에서 오랫동안 유랑하면서
頻年岐路間	여러 해를 기로에서 헤메었소.
自知爲客苦	나그네의 괴로움을 알면서부터
始覺在生難	삶에 있어 어려움을 비로소 느꼈다오.
此別無家別	이 이별은 집 없는 이별이라
千山更萬山	천산에 다시 만산이 막혔구려.
送君歸去後	그대를 보내고 돌아간 뒤에
還復掩柴關	다시 사립문을 닫아거네. <sup>56)</sup>

수련의 ‘關外’, ‘久’, ‘流落’, ‘頻年’, ‘岐路間’ 등은 어느 것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어가 없다. 하나같이 유랑 생활이 오랫동안 이어진 고된 여정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함련에서 시인이 ‘알게 된 것[自知]’과 ‘비로소 깨달은 것[始覺]’이 어떤 것인지를 심분 짐작할 수 있다. 경련에서는 이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인이 제시하는 이별의 모습은 ‘집 없는 이별[無家別]’이다. 이별은 정들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충분히 안타까운 일이지는 하지만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 인간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집, 즉 定處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별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이별한 후에 시적 자이는 ‘사립문을 닫아 거[掩柴關]’는 행위으로써 단절감을 심화시킨다. ‘還’이 단절의 주체가 외적인 것인지 내적인 것인지에 대한 경계를 모호하게 흐트러트리고 있다. 어느 쪽이든 심리적인 단절감을 드러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집 없음[無家]’은 자신만의 공간인 집에 대한 추구로 이어진다. “세상에서 오래 나그네 되어, 살아온 지 이미 반평생이 되었네. 어느 때에 대 수풀 아래에서 사립문 닫아 두고 살아보려나.[在世長爲客, 行年已半生. 何時竹林下, 棲息

56) 李達, 『蓀谷詩集』 권3, 「次權進士韻」.

掩柴荆』<sup>57)</sup>에서 ‘반평생[半生]을 길 위에서 떠돌아다니며 보낸 시적 자아는 ‘사립문을 닫아두고[掩柴荆] 살 수 있는 내밀한 자신만의 공간을 소망한다. 집은 현실적인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인간 삶의 상징적인 구심점이다. 넓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자신만의 구석이자 우주이다. 집은 우리를 지켜 주고, 생각과 추억과 꿈을 하나로 모아 주고, 평화롭게 꿈꾸게 해 준다.<sup>58)</sup> 그 속에서 새가 나무에 깃들여서 조용히 쉬듯이[棲息] 조용히 살고 싶은 시적 자아의 마음이 시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가 꿈꾸는 공간은 매우 소박하다. 그저 가시 사립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집에 있으면 가난해도 좋단 말을 비로소 믿겠네.[始信在家貧亦好]』<sup>59)</sup>에서처럼 그저 집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江南三月聽歸鴻	강남 삼월에 돌아가는 기러기 소리 들으며
夜坐頻書咄咄空	밤에 앉아서 자주 허공에다 ‘돌돌괴사’를 쓰네.
千里客情燈影裏	천리 나그네의 정은 등불 그림자 속에 있고
一年花事雨聲中	한 해 꽃들의 뜻은 빗소리 속에 있네.
丹爐久廢知無術	단로(丹爐)를 버린 지 오래라 술수 없음을 알겠고
白髮偏生亦不公	흰 머리 두루 나니 또한 공평치 않네.
行路難行只如此	세상사는 일이 어려우나 다만 이같이 가며
掩門高臥是英雄	문 닫고 높이 누우니 바로 영웅이로다. <sup>60)</sup>

호남에서 나그네로 머물면서 읊은 시이다. 계절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돌아가는 삼월이다. 시적 자아는 밤에 홀로 앉아서 공중에 ‘뻘뻘怪事’라는 네 글자만 자주 되풀이해서 쓰고 있다. ‘돌돌괴사’는 놀랄 만한 괴이적인 일이란 뜻으로, 가슴속의 울적한 심사를 입 밖에 표출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는 것을 말한다.<sup>61)</sup>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원망을 가슴에 담고 있는 시적 자아에게

57) 李達, 『蓀谷詩集』 권3, 「茂長道中」.

58)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空間의 詩學』, 민음사, 1990, pp.115-118.

59) 李達, 『蓀谷詩集』 권4, 「渡清川江」.

60) 李達, 『蓀谷詩集』 권4, 「湖南客中」.

61) 『晉書』 권77, 「殷浩傳」, “晉 나라 때 中軍 殷浩가 모함을 입어 信安으로 쫓겨났다.

세상은 그리 공평한 곳이 못된다. 경련의 ‘亦’은 ‘不公’을 흰 머리의 문제에서 시 전체의 문제로 넓혀주고 있다. 미련에서 시적 자아는 ‘세상사는 일의 어려움[行路難]’을 이야기하지만, 그런대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만하다고 표현한다. 그래서 시적 자아는 문을 닫고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한다. ‘世俗의 번잡함을 벗어나서 마음 편히 지내는 삶[高臥]’이 바로 시적 자아가 꿈꾸는 삶이다.

시적 자아는 현실의 공간에 대해 거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好爵高官處處逢	벼슬 높은 고관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니
車如流水馬如龍	수레는 물 흐르듯, 말은 용인 듯.
長安陌上時回首	서울 거리에서 때때로 머리를 돌려보니
咫尺君門隔九重	지척의 대궐 문은 아홉 겹으로 막혀 있네. <sup>62)</sup>

서울 거리에서 고관대작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쓴 시이다.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이 수레를 움직이고 말을 몰아 향하는 곳,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간은 바로 임금의 사는 대궐이다. 조선 사회에서 성리학을 연마한 유자는 과거라는 공정한 제도를 통해, 혹은 천거를 통해 지배 질서에 편입될 수 있었다. 지배 질서로의 편입을 추구하는 모든 유자들에게 서울, 그 중에서도 특히 군주가 있는 대궐은 중심을 향한 욕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열자리는 신분으로 인해 과거를 볼 수 없었던 시인에게 대궐은 그저 타자의 공간일 뿐이다. 자신이 속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리감은 ‘아홉 겹의 문’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실제 궁성의 문을 표현한 것이지만, 여기에 ‘隔’을 나란히 둠으로써 아홉 겹의 견고함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더하고 있다.

---

밖으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없이 평상시처럼 담소하고 吟咏하였으므로, 자기 식구들도 쫓겨난 데 대한 유감의 기색을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런데 하루 중 일 손가락으로 허공에다 무슨 글자를 썼다. 이에 사람들이 몰래 엿보니 ‘嗚嗚怪事 : 어허, 괴이한 일로다’라는 네 글자였다.”

62) 李達, 『蓀谷詩集』 권6, 「洛中有感 其一」.

현실에 대한 이러한 거리감에도 ‘집 없는[無家]’ 삶과 길 위의 유랑은 계속 된다. 그리고 시인에게는 이런 삶을 지탱하는 자신만의 무기가 있다.

久病貧常在    오랜 병에 가난은 늘 따르고  
 無家歲屢移    집 없어 해마다 자주 옮긴다오.  
 非君愛我意    그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誰敢語支離    누구에게 감히 지리하게 말하리오.<sup>63)</sup>

병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어서[無家]’ 자주 옮겨 다니는 열악한 삶이 지만 시적 자아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가슴 속에 담아둔, 하고 싶은 말이 끝이 없음을 ‘支離’라는 시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흥금을 꺼내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벗이 있기 때문이고, 벗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는 그의 시인으로서의 自負心과 관계가 있다. 시 속에서 그는 종종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형상화하면서 자부심을 드러낸다.<sup>64)</sup> “계지는 원유하며 갓옷이 다 헤졌고, 마경은 병이 많아 귀밑머리 다시 세었네.[季子遠遊裘盡弊, 馬卿多病鬢還凋.]<sup>65)</sup>에서처럼 자신을 蘇秦<sup>66)</sup>나 司馬相如<sup>67)</sup>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또 “신녀는 이미 시인이 온 줄 알고, 일부러 비를 내려 나그네의 옷을 적시네.[神女已知詞客至, 故教行雨濕征衣.]<sup>68)</sup>에서처럼 자신을 하늘이 인정해

63) 李達, 『蓀谷詩集』 권3, 「呈柳摠戎」.

64) 이달 시에 나타난 ‘이달의 自己 卑下와 自負心 사이에서 드러나는 抒情’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김금숙, 『蓀谷 李達의 詩意識 研究』, 『語文研究』 150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11, pp.306-312.

65) 李達, 『蓀谷詩集』 권4, 「偶吟」.

66) “나에게 洛陽의 負郭田 二頃만 있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날 육국의 상인을 찰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여 곤궁한 처지가 자신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말한 소계자는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해 갓옷이 다 헤지도록 방랑을 했던 인물이다.

67) 중국 전한시대의 유명한 賦 작가인 司馬相如는 消渴病을 앓았다고 하며, 문학적 상상력이 풍부하고 재능 있는 인물이다.

68) 李達, 『蓀谷詩集』 권6, 「巫山道中逢雨感懷」.

주는 시인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재능을 지닌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나 “강산을 부질없이 오고간다 말하지 말게. 새로 시 얻어 비단 주머니에 가득하다네.[湖山莫道空來往, 贏得新詩滿錦囊]”<sup>69)</sup>에서처럼 시인으로서의 유량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의 방랑은 ‘부질없이 오고가는[空來往]’ 것이 아니라 시인으로서 시 주머니를 채우는 과정인 것이다.

## V. 시적 자아의 움직임을 통해 본 三唐詩人의 세계 인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당시인의 시 속에는 ‘길’이라는 공간이 자주 등장한다. 이 공간은 이미지로 형성된 의식 공간이면서 동시에 삼당시인의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는 실제적인 공간이다. 길에 있는 시적 자아는 이동하거나 머무른다. 이러한 길에서의 시적 자아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시인의 현실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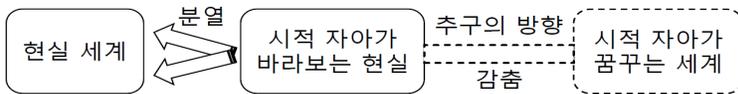
최경창의 시에서 ‘길’은 구체적인 장소를 향해 가는 과정이다. 길에서의 시적 자아의 움직임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떠남[移動]’이다. 이를 통해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가 존재하고, 시적 자아가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시적 자아는 때때로 ‘길을 잃는[迷路]’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는 시적 자아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좌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관직 생활을 담아낸 시들을 통해 시적 자아가 바라보는 현실이 시인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사대부 문인으로 살아가는 시인의 현실이 바로 시 속에서 시적 자아가 바라보는 현실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入仕하든, 隱逸을

69) 李達, 『蓀谷詩集』 권6, 「江行」.

하든, 山林으로 은거하다가 추천을 받아 정계에 진출하던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대체로 정치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치를 통해 자기 성취를 이루고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경창 역시 그러한 지식인 중 한 명이었다. 시 속에서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시적 자아의 지향은 현실 세계에서 정치에 참여하여 더 높은 관직에 오르고 더 나은 삶을 사는 방향으로 향한다. 그 과정에서 시적 자아는 때때로 좌절을 겪기도 한다.

최경창의 시 속에 나타난 세계 인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광훈의 시에서 ‘길’은 이동 공간보다는 그리움을 매개하는 공간, 혹은 머무는 공간이다. 시적 자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길 위에서 ‘머무르느[掩留]’ 경우가 많다. 이별시에서도 다른 사람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그 자리에 머무른다. 시 속에서 시적 자아를 남아서 머무르게 하는 원인으로 보이는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두려움[怯]이다. 이를 통해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감추고 있으며, 시적 자아는 그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두려움은 ‘부끄러움[愧]’으로 이어지고, 시적 자아는 분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시적 자아가 바라보는 현실로도 이어진다. 벼슬을 해야만 하는 현실과 고향으로 돌아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 시적 자아가 바라보는 현실이 실제 현실 속에서 분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몸담고 있던 정치 현실에서도, 그토록 돌아가고자 했으나 돌아가지 못했던 고향에서도, 어느 쪽에서도 온전하지 못했던 분열된 자아의 모습을 시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백광훈의 시 속에 나타난 세계 인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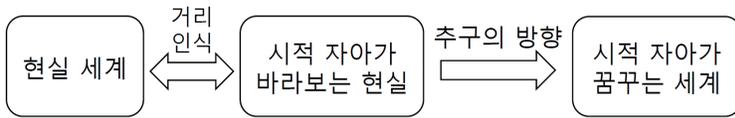


이달의 시에서 길 위의 시적 자아는 대부분 어디론가 가고 있다. 그 움직임은 목적지나 定處가 없는 ‘떠돌이[流浪]’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집 없음[無家]’과도 관련이 깊다. 집 없이 떠도는 삶에 지친 시적 자아는 자신만의 공간인 소박한 집을 소망한다. 이를 통해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가 존재하고, 그것을 시 속에서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적 자아는 현실 세계에 대해 자신이 속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리감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떠도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정착하거나 안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끝없는 이동은 숙명적인 것이다. 이는 신분제 사회 속에서 열자로 살면서 높은 시재를 지니고 있음에도 관직으로의 진출이 막혀 있었던 시인의 현실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적 자아의 유량은 그리 비극적이지만은 않다. 시 속에서 그는 종종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형상화하면서 자부심을 드러낸다. 재능을 지닌 시인으로서의 시적 자아는 시를 짓기 위해 하는 유량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의 지향이 현실 세계가 아닌 스스로의 세계,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달의 시 속에 나타난 세계 인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도표들을 보면 세 시인의 세계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도,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도, 추구의 방향도 다르다. 동시대를 살면서 비슷한 시풍으로 시를 썼음에도, 그 속에 이렇게 다른 세계 인식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시 속에 인간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세계를 그려냈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보여준 서로 다른 세계 인식은 인간의 본성을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었던 새로운 시풍과 만나면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

16세기에 당시풍이 유행한 것은 이 시기의 관점에서 좋은 시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sup>70)</sup> 당시풍의 유행은 관념적인 것에서 벗어나 실제 생활에서 느낀 구체적이며 개인적인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생활적 정감을 시화하여 문학의 독자성을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당시풍의 유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김창협은 당시풍의 유행으로 시의 도가 오히려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조 이후의 시들은 개성이 사라져서 시를 읽어도 거의 그 사람을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혹평했다.<sup>71)</sup> 김창협의

70) 김종서, 「詩話에 나타난 三唐詩人에 대한 批評 樣相」, 『한문학회』 17권, 우리한문학회, 2007, p.311.

71) 金昌協,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세상에서 말하기를 우리 조선의 시는 선조대 만큼 성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시의 도가 쇠퇴한 것이 사실 이 때 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 이로부터 가는 길이 한결같고 음조가 비슷하여 다시는 천성의 질박함이 남지 않게 되었다. 이런 까닭에 선조 이전의 시를 읽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보는 듯했는데, 선조 이후의 시를 읽으면 거의 그 사람을 알 수 없다. 이것이 시도에 있어서 성쇠의 구별이다.[世稱本朝詩, 莫盛於穆廟之世. 余謂詩道之衰, 實自此始. ... 自是以後, 軌轍如一, 音調相似, 而天質不復存矣. 是以讀穆廟以前詩, 則其人猶可見, 而讀穆廟以後詩, 其人殆不可見. 此詩道盛衰之辨也.]”

이와 같은 詩史 해석은 17세기 후기 주요 시화들의 견해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17세기 시화에서는 대부분 전기 작가보다는 중기 이후의 작가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창협이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삼당시인의 한시는 인간적인 정서와 각자의 개성을 담고 있는 한시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들의 시 속에는 세 시인 각자가 추구하는 다양한 세계 인식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열려 있음이 17세기 이후의 다양한 시풍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 VI. 결 론

삼당시인의 시는 당풍이라는 비슷한 시풍으로 인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시 속에 반영된 삼당시인 각자의 세계에 대한 인식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본고는 이 차이를 밝히기 위해 그들의 현실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공간인 ‘길’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최경창의 시에서 ‘길’에서의 시적 자아의 움직임은 ‘떠남[移動]’과 ‘길 잃음[迷路]’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의 시에서 ‘길’은 구체적인 장소를 향해 가는 과정이며, 시적 자아는 대부분 목적지를 향해 간다. 시적 자아는 떠남과 이별을 인간 삶에 있어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길을 잃기도 한다. 이러한 길 잃음은 정치 현실에서의 좌절과 관련되어 있다. 현실 세계에서 인정받고 더 높은 관직에 오르기를 바라는 시적 자아가 현실적인 지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좌절인 것이다.

백광훈의 시에서 ‘길’에서의 시적 자아의 움직임은 ‘머무름[淹留]’과 두려움, 겁냄, 부끄러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의 시에서는 길 위에 있는 시적 자아의 움직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시적 자아는 주로 머무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적 자아의 머무름의 원인 중 하나는 ‘怯’이다. 이는 곧

부끄러움으로, 시적 자아의 분열로 이어진다. 시적 자아의 현실 속에서 벼슬을 해야 하는 현실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달의 시에서 ‘길’에서의 시적 자아의 움직임은 ‘떠돌[流浪]’과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족감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의 시 속에서 시적 자아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떠남[移動]’이 아니라 定處가 없는 ‘떠돌[流浪]’을 모습을 보여준다. 시에서 자주 보이는 ‘집 없음[無家]’ 역시 길 위에서 떠도는 삶과 관련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만의 공간 추구로 이어진다. 또한 시적 자아는 공평하지 못한 현실 공간에 대해 거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시인으로서의 삶에 자족감을 느끼는 시적 자아는 시인으로서의 방랑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 시인의 현실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우선 시적 자아가 바라보는 현실과 현실 세계와의 관계를 보면, 최경창의 경우에는 그 둘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백광훈의 경우에는 시적 자아가 바라보는 현실이 정치 현실과 고향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달의 경우에는 현실 세계에 대해 거리를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와 추구하는 방향을 보면, 최경창의 경우에는 시적 자아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현실 세계로 향해 있다. 백광훈의 경우에는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감추고 있어서 시적 자아의 지향점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이달의 경우에는 그 방향이 현실 세계가 아닌 스스로의 세계,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를 향해 있다. 세 시인의 세계 인식을 비교해 보면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도, 시적 자아가 꿈꾸는 세계도, 추구의 방향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삼당시인의 한시는 16세기 시풍의 변화를 이끌면서 시적인 성취를 보인 시들로서 漢詩史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한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시풍의 공통적인 특질이나 표현 기법, 풍격, 당대 시들과의 관계 등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세 시인에게 시는 현실과 꿈을 담아내는 유일한 도구로서의 의미도 컸다. 이것이 세 시인의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차이점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들의 시 속에는 인간적인 정서와 각자의 개성, 각자가 추구하는 세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시를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다.

<參考 文獻>

-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162, 민족문화추진회, 1996.
- 白光勳, 『玉峯集』, 『한국문집총간』 47, 해동문화사영인, 1985.
- 李達, 『蓀谷詩集』, 『한국문집총간』 61, 민족문화추진회, 1991.
- 崔慶昌, 『孤竹遺稿』, 『한국문집총간』 50, 민족문화추진회, 1990.
- 崔慶昌·白光勳·李達, 趙達淳 역, 『(國譯)三唐詩』, 태학사, 1999.
- 『(국역)조선왕조실록』.
- 『詳說 古文眞寶』, 保景文化社, 1986.
- 가스통 바슐라르, 광광수 역, 『空間의 詩學』, 민음사, 1990.
- 김금숙, 「蓀谷 李達의 詩意識 研究」, 『語文研究』 150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11.
- \_\_\_\_\_, 「白光勳 漢詩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 분석」, 『語文論集』 제38집, 중앙어문학회, 2008.
- \_\_\_\_\_, 「최경창 시의 이미지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2000.
- 김선학, 『비평 정신과 삶의 인식』, 문학세계사, 1987.
- 김정인, 「三唐詩小考」, 『동양고전연구』 10집, 동양고전학회 1998.
- 김중서, 「16세기 湖南詩壇과 三唐詩人」, 『한국한시연구』 11집, 한국한시학회, 2003.
- \_\_\_\_\_, 「16세기 湖南詩壇과 唐風」,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4.
- \_\_\_\_\_, 「詩話에 나타난 三唐詩人에 대한 批評樣相」, 『한문학보』 17권, 우리한문학회, 2007.
- \_\_\_\_\_, 「16세기 湖南詩 미의식·意境의 아름다움」, 『동방한문학』 제50집, 2012.
- 김태준, 『여행과 체험의 문학-중국편』, 민족문화문고 간행회, 1985.
- 박병익, 「16세기 三唐詩人の 唐詩風 연구」, 목포대 박사학위논문, 2005.
-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 안병학,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 박사논문, 1988.
- \_\_\_\_\_, 「朝鮮 中期 唐詩風과 詩論의 展開 樣相」, 『한국문학연구』 창간호, 고려대 한국문학연구소, 2000.
- 劉若愚, 이장우 역, 『중국시학』, 범학도서, 1979.

- 유현숙, 「손곡 이달의 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87.
- 윤재환, 『三唐集』을 통해 본 조선 중기 문인들의 이별 그리고 그리움의 변주삼당 사이의 교유시를 중심으로, 『고전과해석』 7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9.
- 이문열·권영민·이남호 엮음,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 이승훈, 『현대시작법』, 복인, 2011.
- 이재선, 「길의 문학적 상징체계」, 『한국문학 주제론』, 서강대 출판부, 1991.
- 이종묵, 「漢詩 作法의 言語學的 接近 試論-三唐詩人 漢詩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권, 국문학회, 1997.
- 이택동, 「韓國漢詩의 分析的 研究-三唐詩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1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3.
- 張景昆, 「朝鮮王朝“三唐”詩人的宗唐詩風與元明詩學」, 『열상고전연구』 제46집, 열상고전연구회, 2015.
- 정 민, 『한시미학산책』, 솔출판사, 1996.
- 조영임, 「三唐詩에 나타난 "비에의 정조"에 대하여」, 『인문학지』 27권, 충북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03.
- \_\_\_\_\_, 「三唐詩에 보이는 繪畫性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20집, 개신어문학회, 2003.
- \_\_\_\_\_, 「三唐詩人의 ‘仙界憧憬’에 대한 小考」, 『한국한시연구』 12집, 한국한시학회, 2004.
- \_\_\_\_\_, 「三唐詩人의 詩世界 연구」, 충북대 박사논문, 2004.

Abstract

*A Study on Perception of the World Appeared in Sam Dang poets(三唐詩人)'  
poems - Focused on the Movement of the Poetic Self in 'Way'*

*/ kim Gum-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 of Sam Dang poets(三唐詩人)' world. For this, it's to analyze the movement of the poetic self in 'Way'.

The movement of the poetic self in Choi Gyeong-chang(崔慶昌)'s poems is shown with 'Leaving' toward to a destination and 'Losing one's way' frustrated in the political reality. The poetic self that wants to be recognized in the real world and to hold higher government positions has also suffered a defeat in the process of seeking a realistic orientation. In the case of Baek Gwang-hun(白光勳), 'Staying' the movement does not reveal well and fear appear. In the reality of the poetic self, we see the collision between the reality he has to take up a public office and the reality he wants to return to his homeland. For lee Dal(李達), the movement of the poetic self appear as aimless 'Wandering' and self-sufficiency for life as a poet. 'Homeless' seen frequently in his poems leads to the pursuit of his own space, home. The poetic self feels the distance to the real space but accepts wandering as a poet.

Based on the movement of the poetic self, the reality and perception of the world of three poets can be compared. In Choi Gyeong-chang's poems, the reality of the poetic self and the real world coincide. The orientation which the poetic self seeks in it is heading into the real world. In Baek Gwang-hun's poems, the reality of the poetic self is divided into political reality and homeland. The direction toward the orientation of the poetic self cannot be investigated. In Lee

---

\* Lecturer of Kangwon National Univ. / goldmine@kangwon.ac.kr

Dal's poems, the poetic self recognizes the distance to the real world. The poetic self is heading into the world which poetic self dreams rather than the reality. Comparing the three poets' perception of the world, the awareness on the reality, the world which the poetic self dreams and the direction of pursuit can be seen different.

**【Key words】** Sam Dang Poets(三唐詩人), World Appeared, Way, Losing one's way(迷路), Staying(淹留), Wandering(流浪)

투고일 : 5월 17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